

## 11장\_정선아리랑학교

### 동네야 놀자!

2005 년 10 월 30 일

‘디카로 찍은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어제 아리랑학교와 매화동 마을에서 함백초등학교 학생 35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촬영법의 첫 단계 중 하나인 카메라 작동법과 구도, 표현 등을 익힌 다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아주는 놀이의 일환으로 ‘친구들 찍어주기’를 함께 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배우는 것은 ‘웃음을 남기는 법을 배우고, 즐거움을 남기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금세 카메라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중, 나중에 이 사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라고 내가 찍어주는 거야.”

“어디 봐!”

“나도 봐!”

“나도 보여줘!”

디지털 카메라의 모니터에 새겨진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찡그리거나 자랑스럽게 웃어보이는 표정이 이미 사진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오후에는 연극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 표현 훈련하기 등을 통해 연극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번 주 사진과 연극의 기초를 배운 학생들은 앞으로 현장 훈련을 계속한 다음, 11 월에는 함백마을을 주제로 한 사진촬영을 통해서 ‘어린이 눈으로 본 마을 사진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2005 년 11 월 6 일

### ‘친구들 노는 모습 추억으로 남겨두기’

매주 수업을 받는 함백초등학교 학생 35 명은 어제 아리랑학교에 모여 지난 주 배운 사진의 구도와 카메라 작동법에 대해 복습을 한 후, 오후 2 시부터는 신동읍 함백초등학교와 함백시장 일대에서 사진 촬영 실습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연극의 기초를 배웠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 굳어지는 법도 없이 개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촬영을 하는 아이들 역시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순간 포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작 두 번째 수업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카메라를 그리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표출하는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실기를 지도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제각각 색다르다고 평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는 19 일에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골라 직접 액자 속에 넣고 이야기를 담은 제목을 정해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나무에서 명상에 잠긴 호근이

지난 주 아리랑학교에서 열린 사진수업시간에 나무에 올라갔던 호근이는 어제 함백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진수업시간에도 나무에 올라가 명상에 잠겼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랬지만 나무에 올라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켜보며 느낀 점이지만, 호근이는 항상 뭔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 생각의 깊이가 키가 자라는 만큼이나 깊고 깊어져 훗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 카메라를 든 성남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성남이의 표정은 늘 진지합니다. 개구쟁이처럼 운동장과 골목을 뛰어다니다가도 사진을 배울 때나 연극을 배울 때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신중하고 차분해져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어제 함백초등학교 앞 마을에서 야외촬영 실습을 할 때 성남이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들과 누나, 선생님의 사진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 사진작가가 된 준호

이제 3 학년인 현준호 어린이가 몰래 찍은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문화예술교육 디지털 카메라 사진 교육 실습장면을 부지런히 영상으로 기록하는 중에 선생님은 준호에게 찍히고 말았습니다. 개구쟁이 준호는 어느새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2005 년 11 월 13 일

아이들이 바라본 함백

지난 토요일 함백초등학교 아이들과 안경다리에서부터 함백역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장비가 모자라 구석구석 많은 곳을 담지 못해 아쉬운  
선생님과는 달리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라 본 세계를  
펼쳐놓았습니다.

### 미소가 찍은 함백역

6 학년 나미소 어린이가 찍은, 이제는 문단은 함백역입니다. 번성했던  
시절에는 하루에 천 명 정도가 이용했던 역입니다. 미소의 눈에 비친 함백역,  
그리고 폐허가 된 역 주변의 풍경은 어떨까요? 역은 문을 닫았어도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는 오늘도 어김없이 함백역을 지나갑니다.

### 동용이가 찍은 폐광촌의 폐가

안경다리는 1990 년 초까지만 해도 함백광업소가 있어 번성했던 곳입니다.  
카메라를 쥔 4 학년 동용이는 쓰러진 폐광촌의 가옥을 찍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아도 초라한 곳, 동용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카메라 촬영수업을 받다가 잠시 시간을 낸 함백아이들

사진 수업을 받다가 아이들이 장난을 합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니  
해찰이 아닌가요? 말타기를 즐기기도 하고, 콩을 터는 마을 할머니를 졸라  
키질도 해보고, 웅크리고 앉아 몰래 가져온 휴대전화로 문자도 보내고,  
차가운 함백역 광장에 앉아 공기놀이도 했습니다.

11 월 19 일

## 골목길

함백 어린이들이 다시 안경다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4 주 동안의 마을 사진찍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을과 골목길을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루는 솜씨들이 이제는 제법 손에 익은 듯한 모습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 자체에 낯설어 했지만 구도를 배우고, 마을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인화한 사진을 보면서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교육과 훈련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 내가 사는 마을, 우리가 함께 사는 마을

내가 살아 온 마을이지만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관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렌즈 속에 마을과 골목과 사람들의 얼굴을 담으며 아이들은 내가 사는 마을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 동네야, 같이 놀자!

말썰꾸러기 동용이도, 축구 좋아하는 개구쟁이 하진이도, 게으름 피우는 태경이도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는 동안 키도 자라고 마음도 훌쩍 컸습니다. 동용이에게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태경이는 연극배우가 되고 싶어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골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해 하고,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강원도 정선지역 함백아이들과 함께한 미디어교육 ‘동네야 놀자’

강원 정선아리랑학교

